

버리게 된 새 옷

나는 새 것을 사용하기 보다는 그것을 보관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어 무슨 물건을 하나 새로 구입하면 금방 사용하기 보다는 잘 모셔 두었다가 후에 사용 한다는 이야기다. 더 자세히 예를 들면 옷을 새로 구입 했을 때 곧 가격표를 떼고 금방 입지 못한다. 조금 더 보관한 후에 적절한 때에 입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버릇이 요즘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몸무게가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던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운동량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몸무게가 이전과 같지 않다. 바지도 사이즈를 하나 줄여야 하고, 옷웃도 이전과 같지 않다. 또한 이전에는 크게 입었지만 요즘 그렇게 입었다가는 촌사람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입지 않고 아껴왔던 옷들이 모두 맞지 않는다. 잘 모셔 놓았던 옷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정말 아까워 안타까운 마음까지 든다. 그렇다고 내 몸무게를 늘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도 겨울이라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안에 두꺼운 것을 입고 입어 보지만 무언가 이상하다. 아껴 두었다가 버리게 되었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었다. 할 수 없이 지금 나의 몸에 맞는 옷을 또 다시 사서 입을 수밖에 없게 생겼다. 이제는 미리 옷을 구입하지도 않겠지만 있는 옷들을 그 때 그때 입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 신앙생활은 아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를 그때그때 기대하고 그 은혜로 살며, 더 나가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이다. 하지만 내 스스로 돌아보면 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나누기 보다는 잘 간직하는 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즉시로 나누는 것인데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은사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는가?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것인데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숨기고 산다. 옆에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게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누라고 하신다. 오늘 받는 은혜도 받고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하여 고민해야 한다. 오늘 받은 은혜를 일터에서 혹은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라고 하신다.

새로운 것을 받으면 곧 사용하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후히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 것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두 사용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

입지 못할 옷들을 챙겨서 미안한 마음으로 Goodwill 에 갔다가 주려고 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되도록 이면 남겨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듯이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여야 세상에 나누어 줄지 고민도 더 깊이 있게 하여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